

대한민국 판 흔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낸다

국토 면적 전국 1위, 재정 2조↑
권한이양·특례 자치권 대폭 강화
산림·하천 개발 제한 효용 극대화
TK-PK 잇는 초광역철도전철망
2026년 특별시·시장 출범 '사활'
동서화합·국가발전 시발점 우뚝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광역철도망과 도로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적용된 각각의 대우가 통합된다. 요금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며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전라도, 경남 및 부산과의 협력을 통해 광역 철도, 광역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 기대해볼 만한 일들, 눈여겨볼 것들이 많다.

경북은 40여년 전 대구가 직할시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돼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수도권 인구는 2배로 늘었으나 대구·경북은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될 뿐이었다.

전국 인구는 지난 1980년 3744만명에서 2024년 5127만명으로 37% 늘어났으나 대구·경북 인구는 그렇지 못했다. 서울·경기·수도권은 1330만명에서

수 있다. 대구·경북의 규모가 달라지고 경쟁력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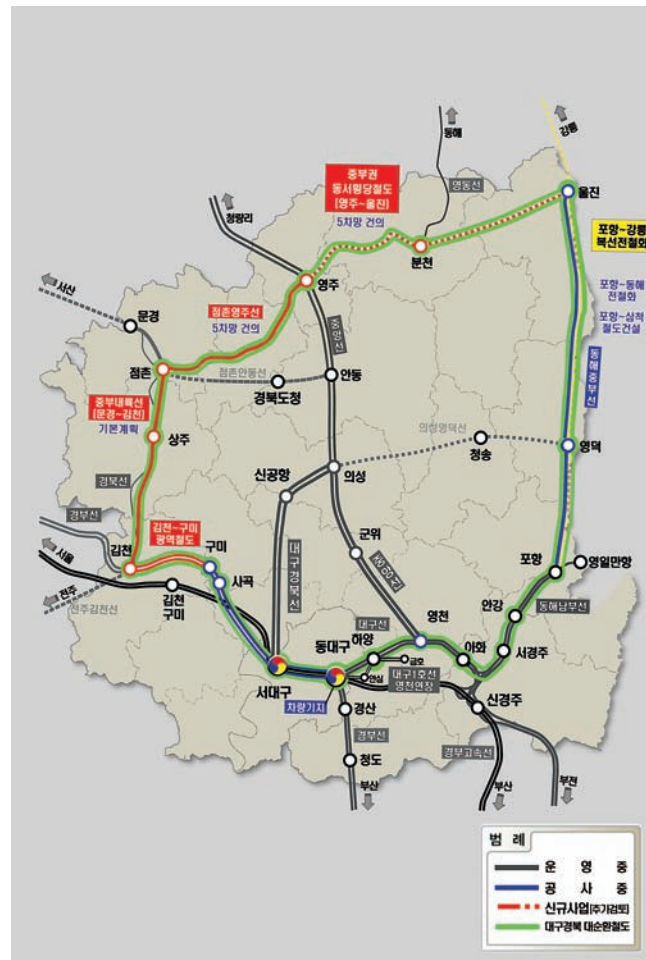
통합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된다.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 물 문제 등 미해결된 과제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권한과 재정증가로 풍요로운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00개 이상의 국가 사무권을 넘겨받아 지역의 관점에서 일반사무를 볼 수 있으며 특례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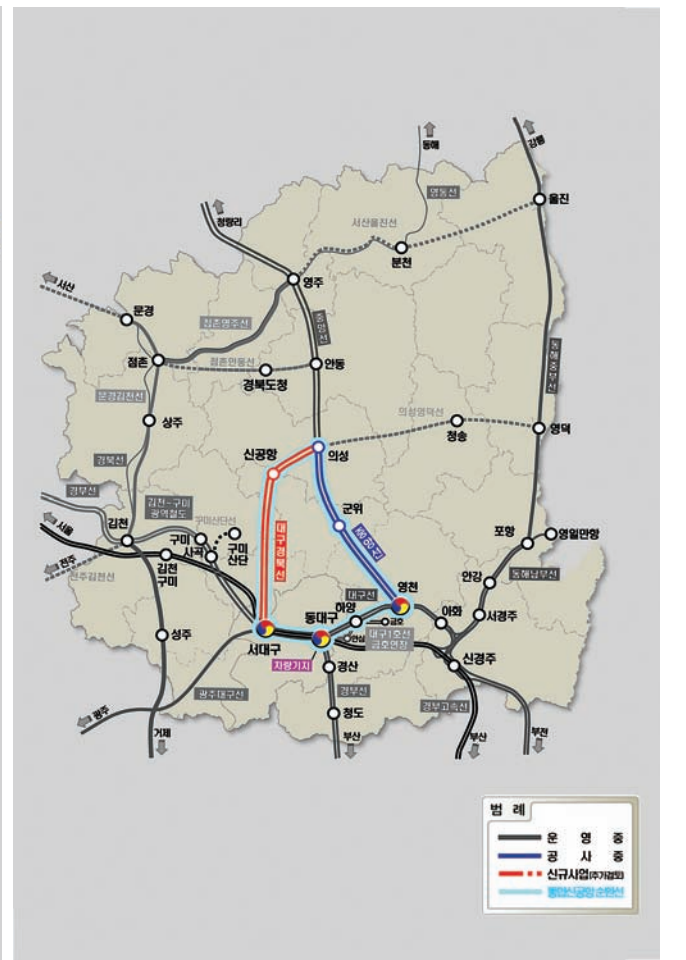
각종 세제 대구경북특별시로 넘어오며 재정은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은 모두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산림과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재해 재난으로부터 더 신속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산림개발에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지방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낙동강 등 국가하천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특별시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개발제한된 현재의 산림과 하천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타지역의 지방행정통합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 지방행정통합을 희망하는 타지역 자치단체들과도 초광역 협력이 가능하다. TK와 PK 간에 초광역철도전철망을 만들 수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가능해 서산-문경-예천-영주-



대순환노선도.



신공항 순환철도.

봉화-울진이 연결된다. 동서3축 고속도로가 건설돼 무주-성주-대구가 연결되며 동서화합의 시발점이 된다. 남부 9축 고속도로가 건설돼 영천-청송-영양-봉화-양구가 연결된다. 강원도와 전라도, 경남도권과 접근권이 강화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통합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

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통합과정에서 난제도 있다.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벽을 넘어야될 문제, 내년 하반기 전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국회를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오는 2026년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장이 출범해야 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7일부터 동부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통합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며 반대하는 지역에 대한 홍보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인터뷰



박상철 교수

- (현)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혁신전문위원회 위원
-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TK행정통합 핵심은 더 커진 '재정력'

▶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40-50년 내에 소멸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풀는 물에 개구리가 죽듯 우리 지방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2년에 대구는 180만 인구가 되

고 경북도도 217만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시·도를 합쳐서 397만명 수준인데 이는 지금보다도 100만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지역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축소되는 인구 규모에 대응한 행정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 등에서 담대한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의 성공은 시·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구경북통합 미래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행·재정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정 분야 전문가이시니 특별법상 규정된 재정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 재정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정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20조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의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비용,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면에 계속)

이 외에도 다른 조항에서 양도소득세 이양과 법인세 교부, 지방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불이의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통합교부금을 만들어 대구경북 통합 관련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구경북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별법대로 된다면 대구경북통합 후의 재정력은 이전의 대구경북을 합친 것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면에 계속)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된 대구경북이 만드는 대구경북특별시!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행정통합 왜 해야 하나요?

대구경북 분리 이후 40여년 지난 지금, 수도권 인구는 2배로 ↑, 대구경북 인구는 오히려 감소 ↓

"대구·경북이 하나되어 발전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위기(인구)		
구분	1980년	2024년
대한민국	3,744만명	5,127만명 (+37%)
수도권	1,330만명	2,605만명 (+96%)
대구경북	495만명	490만명 (-1%)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 대구경북의 규모와 경쟁력 강화**
 -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됩니다.
 - 대구경북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통합신공항, 물문제 해결 등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권한과 재정증가로 풍요로운 주민생활**
 -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권한이양과 특례로 자치권이 강화됩니다.
 - 각종 세제·세제 이양으로 지방재정이 약 2조원 증가합니다.
 - 산림, 하천 관리 권한 이양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신속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교통망 확대

- 대구경북 순환 철도전철망
-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 동서3축 고속도로 (무주-성주-대구)
- 남부9축 고속도로 (영천-청송-영양-봉화-양구)

국토면적 20% ↑ (전국 1위)
인구 500만명 (전국 3위)
GRDP 178조원 (전국 3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영양항만

경상북도

TK행정통합 핵심은 더 커진 '재정력'

1면에 이어= ▶재정 이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어떤 점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 무엇보다 인구입니다. 지금도 대구·경북의 인구는 매년 3-4만명씩 급격히 줄고 있어서 한 해마다 군 단위 인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하면 국토면적의 5분의 1을 관할하고 약 500만명의 인구가 191곳의 지역총생산, 51조의 재정규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대구경북이 일원화된 인구 정책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통합신공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이게 완성되면 영일만항과 함께 하늘과 바다의 물류 길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국가산단 지정도 통합시(특별시장)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3-5년 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모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변화가 실질적 지역산업 확대로 이어지도록 법률적 그리고 정책적 지원활동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와 같은 형태가 될까요?

- 지난 2021년 공론화위원회에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명칭으로 이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구경북특별시'는 명칭은 특별시이지만 기존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제3의 행정체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자치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광역시나 도보다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받고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독자적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시로 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켜서는 안되고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모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시·군 사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4차 공동합의문을 보면 '시·군·자치구가 존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시·군의

사무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군 개별 사무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정해질 부분이지만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사무가 상당히 이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시와 관할 시·군·자치구 모두가 지금보다 자치권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에 따라 경북에는 어떤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경북에서 행정통합민관합동추진단과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물에 기반하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순환전철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경북 전체를 1시간 내로 이동 가능한 대구경북광역순환전철망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경북도민이 불편을 겪었던 교통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부권은 울진-영덕-포항-경주로 이어지는 수소배관망 건설 사업인 원자력수소고속도로 등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영일만 대교 건설과 함께 환동해의 시드니로 만들겠다는 신영일만 구상이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같은 다양한 발전 사업들이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있으신지?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추진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권역별 미래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그리고 행·재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확대된 소통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진행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이 행복한 대구경북의 통합 그리고 '민'이 이정한 대구경북 통합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 만들어야

최태립 의원, 주요 현안 도정질문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에

지역 목소리 반영 갈등 조정 요청

산도 지원·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국립의대·늘봄학교 등 교육 관련

양질의 시스템 조성 필요성 강조

경북도의회 최태립 의원은 6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농어촌지역 출산환경 개선사업', '국립의대 신설과 늘봄학교'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통합신공항 추진사업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 간 공동합의

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선정 과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동측안의 문제점과 국토부 검토기구의 구성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북도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출산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산도 지원 제도의 확대와 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원도의 분만취약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농촌 산모들이 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모들이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성을 포함한 북부권과 경북 전체의 의료 취약 상황은 임계점에 다르고 있어 국립의대 신설이냐 말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교육청이 확대 시행한 '늘봄학교' 현장에서 간식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市) 지

역 학교는 계약업체를 통해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郡) 지역 학교는 담당자가 직접 간식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식의 영양과 프로그램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해결 방안으로 "시·군별로 거점화된 간식 공급 시스템을 도입해 간식의 영양과 품질을 보장하고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의 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 부족으로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 모든 초등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립 의원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도 민원조정위, 민원인 권리보호·권익구제 '쟁걸음'

장기·반복·다수민원 등 대책 수립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 다해

청도군은 지난 5일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장, 실과소장 및 외부전문가 등 당면직 8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으로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적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이다.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심의안건 발생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이해관계인 등의 참

석을 통한 의견 청취 및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김동기 부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

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영 기자artmong0@naver.com

도, TK행정통합 권역별 공감대 확립

시군부단체장 회의, 주요 내용 설명 영천·경산·청송·봉화 관련안 논의 도민 이해·의견 청취 등 협조 당부

경북도는 지난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등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주요 내용 설명과 권역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및 22개 시·군부단체장이 참석해 도정과 시·군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활발한 정책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군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군부단체장들은 △영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경산 상림 재할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청송 송생-하의 간 도로 건설 △봉화 주실령 터널 설치 공사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불편 사항 등을 건의했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군의 재정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통합으로 변화되는 대구·경북의 미래상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7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경산시, 안동시, 구미시 등 4개의 권역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통합 추진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예천군의회, 심도 있는 연구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예천군의회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주 일원에서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5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실무 특강과 지역특성화 우수사례 기관 방문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후반기 의정 활동 혁신 전략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실효성 확보 방안 △2025년도 본예

산 심의 기법 및 사례연구 △ESG, 환경, 원도심 활성화 우수 기관 방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선진지 견학 등이다.

강영구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과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연수 역시 심도 있는 직무 연구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당면한 제2차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더 배우고 더 일하는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일 잘하는 경북도, 지역 인구 감소 '브레이크' 도내 15개 시군, 낙후지역발전 '머리 맞대'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 확보 '청도군·김천시' 우수지자체 선정 1226억 지원 혁신 사업 추진 속도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오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해마다 1조원 규모로 분배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구

성태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할당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등급 체계를 S·A·B·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화시켰으며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를 88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

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는 2025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곳, 관심 지역 2곳) 중 청도군과 김천시 2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원을 지원받는다.

청도군은 청도읍, 화양읍 중심부에 조성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하고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계해 청년층 수요 육

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기본계획 2차 수립 설명회 특성 반영 균형발전 전략 수립

경북도는 지난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도내 낙후지역(성장축진지역) 15개 시·군 공무원과 용역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2026-2030년) 2차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은 장기·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낙후지역 15개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화된 지역 특성·잠재력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도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난 2017년 최초 수립됐다.

이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계획의 세부 일정과 저출생 극복, 신혼부부·청년층 주거거점 마련, 수도권은 퇴자 정착 유도 등 새로운 발전 전략과 신규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제1차 계획(2016-2025년)의 재원 규모는 기존 2200억원에서 800억원 증액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소멸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생활 인구 증대와 거주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개발 분야 대학교수와 경북연구원, 도출자 출연기관 연구원 등의 자문 결과를 통해 5개 분야(△저출생 극복·신혼부부 청년 주거거점 마련 등 복지분야 △개발필수 기반 시설 조성 및 활력거점 육성분야 △농

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전통적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이 오늘날 다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전시관 주제에 반영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림·수산분야 △역사·문화·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 신규 사업유형과 기존 시설 확충 사업 같은 하드웨어(H/W) 체계에 역량 강화, 운영, 관리 등 소프트웨어(S/W) 체계를 더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경북연구원과 함께 기존 1차 기본계획(2016-2025년)의 성과와 개선 방안 등에 오는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더 나은 도비 지원정책과 S/W지원 제도 등을 발굴해 낙후지역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착수하는 '경북도 지역개발계획(2027-2036년) 수립'과도 연계해 정부 부처 지역개발 사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정한다.

오는 12월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과 검토,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9월 기본계획을 확정, 2026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지역개발사업과 공모사업 등과 모두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유보통합 대비 '바람직한 통합 기관 모델' 만든다

영유아학교 운영 20곳 컨설팅 실시 권역·기관별 맞춰 교원 역량 UP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유치원 10곳과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보육과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곳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유보통합 이후 바람직한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대학교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컨설팅단을 세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 두 가지 주제 중 필요에 따라 컨설팅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요구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평가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지며 정책 추진은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와 교사 전문성 강화 등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참여 기관과 컨설턴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환류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지방시대 엑스포서 '희망찬 경북 미래' 미리보기

도, 저출생 정책·TK통합 등 홍보

경북도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경북 주요 시책을 홍보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에는 600여명의 중앙·지방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엑스포에서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성과와 지

역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대전환 경북 ON!'을 주제로 한 홍보관을 열고 지방정주민 시대 선도모델 K-U시티와 저출생 정책, K-농업 대전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희망찬 경북 미래상을 표현했다.

홍보관은 테마별로 독특하고 화려한 첨단 전시기법으로 관람객의 주목을 받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경살이'와 '안동살이'에 성공한 청년이 자체 개발한 수제 맥주를 선보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경북도의 결혼·출산-

주거 들뜸까지 전주기에 대응하는 저출생 필수 실행계획도 관람객을 상대로 소개했다.

지역 들뜸공동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융합 들뜸 특구'는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했으며 저출생, 인구소멸 등 지방의 문제를 경북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천정의 우산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아울러 20년 만에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현장 이벤트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홍보 포

스터를 배부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에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행정통합추진에 합의해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통합 의지를 반영한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연계 조성하고 지방 행정개혁의 일환인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는 국가균형발전이 생본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모아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반드시 타파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지방 교육 미래 조영도교육발전특구 전시관 운영

경북교육청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경북교육발전특구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경북이 지방 교육의 발상지로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조명, 균형 잡힌 지방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교육발상지, K(경북)-에듀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관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경북이 쌓아온 학문적 성과가 일본과 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한 역

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전통적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이 오늘날 다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전시관 주제에 반영했다.

전시관에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자공고2.0,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복합시설, 지·산·학 연계 교육 혁신 체계 구축 등 7대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경북 13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전시관에 대형 LED 스크린과 터치패널을 설치해 관람객이 직접 탐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생한 AI 퀴즈 패널을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한마체 음대회

구미대학교총동창회

황금빛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
사회 여러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5만3천 동문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구미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양성 및 동문님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대학교 총동창회장 최 규 섭 배상

일시 : 2024년 11월 9일(토) 10:00
장소 : 구미대학교 운동장

시유지 불법건축물 '나 몰라라'... 경주 월성동 안일한 행정 '눈살'

대부 계약자 두세 번이나 변경 건축물 현대식 리모델링에도 민원 접수 "문제 없다" 입장만 바꾸기식·불법행위 조장 지적



경주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경주시 남산4길 11-33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월성동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부목적 외 사용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 조취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을 제보한 A씨는 "대부 계약자가 두세 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건축물 또한 현대식 건축물로 형상이 변경됐는데 이를 보고도 불법행위

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특징인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까지 사용하던 사람이 고인이 됐지만 시유지가 가족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6일 월성동 관계자는 해당 시유지에 대해 국토정보에 확인하고 "지난 1968년부터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997년 처음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년 주기로 대부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대부자 변동이 있었던 기간에는 짧은 기간에 갱신된 적도 있다고 밝혀 대부자가 변경된 것은 인정했다.

해당 시유지 관리를 위임한 시 담당자는 "해당 시유지에 대한 임대 계약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도119산불특수대응단 "촘촘한 산불 대응으로 도민 안전 사수"

하반기 산불대비 합동소방훈련 봉화군청·郡소방 등 93명 참여



경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지난 5일 봉화군 봉성면 봉화향교 인근 산악 지대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산불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주관으로 실시됐다. 또한 봉화소방서, 군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등 93명이 참여했고 산불지휘차, 협치 펌프차, 산불진화차 등 차량 총 15대가 동원됐다.

특히 신규 도입된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해 현장을 지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지휘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산불 초기 선착대 및 의용소방대의 진화 활동, 산불 확산에 따른 소방력 동원 및 적절한 배치

통한 운영능력 향상, 방어진역 설정, 중단 없는 용수공급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림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처럼 진행됐다.

장해동 단장은 "이번 합동훈련이 산

불 진화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불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형영 기자jhy4430@hanmail.net

"구급서비스 질 향상 위해 노력할 것"

경주소방, 구급대원과 간담회 효율적 구급 서비스 제공 논의

경주소방서는 의료계 파업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5일 지역 내 음식점에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유현 서장을 비롯한 재난대응과 관계자, 현장 구급대원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급대원들의 솔직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익명

으로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롤링페이퍼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현장 상황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유현 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구급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상주 공무원들, 통합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

23년 공사 미룬 협소·노후화 청사 복합행정 공간으로 재개편 표명 행정 효율성·시민 편의 증진 '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와 전국자치단체공무원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5일 상주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3년간 미뤄온 오랜 숙원인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통합신청사 건립을 촉구하는 대회로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시민 편의의 복합행정 공간으로 탈바꿈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제고를 위해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 조합원과 전국자치단체공무원본부 상주시지부 조합원 등 30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합원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임한국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은 "통합신청사 건립은 상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주시지부는 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현석 공무원노동조합 분부장은 "상주시민의 23년 숙원 사업인 신청사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호국 영웅 '故 김수덕 일병' 청도 귀환

74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청도군은 6일 이서면 서원리 故 김수덕 일병의 생가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귀환 행사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의 故 김수덕 일병 신원확인통지서 전달, 전사자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일 함' 전달, 참전 과정과 유해 발굴 경과보고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故 김수덕 일병은 지난 1952년 8월 20일 청도군 이서면에서 4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나 19살이 되던 해인 1950년에 국가를 위해 가족을 떠나 6·25 전쟁에 참

전했다. 고인은 제8사단 소속으로 1951년 2월 강원도 횡성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원 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로 가능했다.

동생 김종길(76)씨는 "가족들이 평생 행님을 찾기 위해 애썼는데 이렇게 찾게 돼 다행이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른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신 고인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뒤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고인의 명복을 군민과 함께 빌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경주교도소, 출소에정자 구인·구직 알선

13명 1대 1 면접, 6명 취업 약속

경주교도소는 출소에정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통한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6일 구내강당에서 '2024년 출소에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이 대표로 있는 6개 기업(㈜대보건설, ㈜DY테크, ㈜신흥테크, ㈜한성산업, ㈜해성건축, 사회적 협동기업 희망터널)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에정자 13명을 대상으로 1대 1 채용면접을 실시, 6명이 취업을 약속



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은옥 소장은 "앞으로도 출소자의 취업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로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市, 대형 사업자에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부과

부족한 세수 확보·일반회계 재정 지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9개 사업지구 56억 납부 완료... 추후 7곳서 131억 추가 징수

경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부과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 부과는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조치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

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일반회계 재정 지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총 18개소로 예상되는 상수

도 원인가부담금은 약 216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지구,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시행자가 56억38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올해 중으로 명계3산업단지외 안강검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추가로 28억61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납부 예정 사업지구인 보문천군 도시개발지구, 양남 일반산업단지, 건천4 일반산업단지 등 7곳으로부터 총 131억6600만원의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을 징

수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재원 확보와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맞춰 원인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경주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안전·청결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 ‘최일선’

이달 말까지 안심식당 200곳 모집 시 누리집 제공 서식 작성 후 제출

경주시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및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안심식당 200곳을 모집한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문화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한 외식업 소인증제로 덮어 먹는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안심식당으로 신규 지정되면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부착을 비롯해 업소당 10만원, 기존 안심식당은 5만원 이내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또 네이버 또는 티맵 등의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에 해당 업소가 표출되는 부가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모집 대상은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식품위생산업과 054-779-8878)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재 경주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총 5400여곳 중 2298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 확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더불어 안심식당 발굴과 함께 이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안심식당 운영에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안심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져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K-뷰티 전인’ 미용 인재들, 화려한 손기술 눈길 끌어

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 ‘성료’ 이소라·제승모 등 ‘도지사상’

“2024년 경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가 지난 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14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미용업계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경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는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대회 결과 일반부에서는 이소라(포항 북구) 등 5명과 대학부 제승모(대경대) 등 8명이 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시장상은 일반부 김보민(철곡) 등 4명, 고등부 김재현(삼성생활예고) 등 3명, 대학부 박한별(계명문화대) 등 7명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진대회 외에도 K-뷰티 헤어쇼와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미용인뿐만 아니라 대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회가 역량을 갖춘 미용 인재를 배출하고 최신 미용 기술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 뷰티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민원서류 발급, 365일 24시간 ‘더 편리하게’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7대 추가

경주 지역 전체 읍·면·동에서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6일 경주시는 4억3200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달까지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6대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34대가 운영 중이다.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를 함께 설치했다. 또 황성동, 안강읍, 현곡면, 외동읍, 양남면, 건천읍 등 옥외 이전 지역은 옥외부스만 별도로 설치했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곳은 시각장애인

인용 음성 안내,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 크기 확대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시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총 122종의 증명명 발급이 가능하다. 올 10월까지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총 12만3938건으로 지난해 동기 11만7421건 대비 5.5% 증가했다. 경주시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주말을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올해 경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無

운영위 열어 19품목 선정했으나 최저가격 이하 형성된 품목 없어

경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품목에 따른 최저가격 결정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지깅이, 열무, 만감류 등을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해 19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상 품목 중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된 품목이 없어 지원 사업 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에 품목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시는 향후 농업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이 앞으로 농업인들이 지속적



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물’ 겨울맞이 20% 할인... 11일~30일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경주물이 겨울을 맞아 입점 제품에 한해 2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농특산물 촉진과 경주물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할인 이벤트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펼쳐진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할인은 이시금쌀, 버섯, 미역, 유과, 젓갈, 전통차, 꿀 등의 품목으로 1일 1회 최대 5만원까지 이뤄진다. 특히 5만원 이상 구매 회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담요 및 휴대용 손난로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할인 및 제품 관련 사항은 경주물(https://gjmall.cysco.co.kr)을 확인하거나 전화(054-853-02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특별 할인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행사기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돼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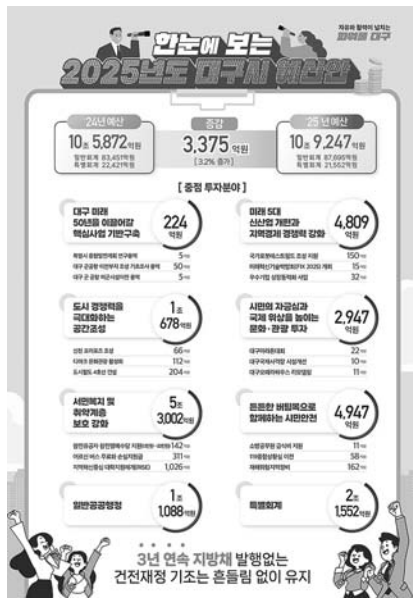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 동참합니다.

시, 예산 편성 3연속 지방채 無... '대구혁신 100+' 완성도 높인다

내년 예산 10.9조, 시의회 제출 굵직한 핵심사업 추진 '최우선' 서민복지 강화·사각지대 해소 비효율건 과감히 축소 재투자 TK특별시 출범 동력 삼아 재도약



대구시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조9247억원 규모의 오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 나간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의 완성도와 서민복지의 빈틈 없이 추진한다는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국내 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 수입 급감(전년 대비 944억원 감소)으로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번영의 동력이 될 '대구혁신 100+'과 서민복지 강화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

첫째 '대구혁신 100+' 완성에 우선 재정투자 집중.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유공자 예우와 어르신 교통복지 등 시민의 삶

을 개선하는 민생혁신, 수변에서 도심에 이르는 공간혁신, 대구마라톤대회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혁신 등 '대구혁신 100+' 혁신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서민복지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로 기능 강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6116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축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재투자했다.

■ 2025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내용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사

업 기반 구축: 대구경북통합 준비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 기반 구축에 224억원을 투자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5억원, 대구경북통합 대비 조직진단 용역 4억원, 대구경북 통합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했다.

오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적기 개항 추진을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50억원과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 5억원을 편성하고 3차 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32억원을 편성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

△미래 5대 신산업 개편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미래 5대 신산업 개편으로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809억원을 투자한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부지매입비 150억원을 편성, 또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15억원을 반영했다.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21억원, AI기반 무선헤ALTH 융합기술 상용화 25억원, 반도체 특성과 대학 지원 6억원, UAM 산업 기반 구축 5억원, 지역 제조기업 현장에 ABB 기술 도입을 위한 파워풀 ABB실종팩토리 구축에 10억원, 음성인식 키오스크 등 ABB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에 3억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 10억원, 스타기업·파워풀기

업 등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3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438억원, 전국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박람회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 3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변에서 도심까지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1조678억원을 투자한다.

동촌유원지 일대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 64억원, 랜드마크 관광보행교 설치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112억원과 내년 7월 개장 예정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해 13억원 등 반영했다. 신천에는 도심 속 수상공원 신천 프러포즈 조성 66억원, 야간 안전 강화를 위한 가로등 설치 12억원을 편성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구 중앙파출소 신축 및 광장·골목길 조성 6억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8억원,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 3억원, 청년버스킹 활성화사업 2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규모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204억원, 금호위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50억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40억원, 조아-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10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300억원 등 도로·교통망 인프라 확충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의 자긍심과 국제위상을 높이는 문화·관광 투자: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947억원을 투자한다.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7대 메이저대회 도약을 위해 22억원을, 오는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에 10억원, 대구국제

사격장을 국제대회로 격상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중국 청두시와의 자매도시 10주년 기념 대구FC-룽칭 FC 친선 축구경기에 1억원을 편성했다.

개관 21년 차를 맞는 국내 유일 오페라 전용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총 19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10월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설계비 1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9월 개관 한 달 만에 7만명이 방문해 대구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에 58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의 대표적 글로벌 축제인 '대구 한 치맥페스티벌'은 14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문화와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이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민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시민들의 생활밀접형 정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서민복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5조3002억원을 투자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위해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311억원을 편성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13억원을 반영했다.

첨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첨진유공자 명예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142억원을 편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주비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7억원을 반영했다.

의료 현장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원 6억원, 대구의료원은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166억원, 혁신지원사업 25억원, 전문인력(20명) 보강 50억원 등을 편성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역

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화당 170만원의 난입부부 시술비 지원 53억원, 서민자녀 교육바우처(1인당 20만원) 24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달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식품바우처는 35억원을 투입해 9개 구·군 전체로 확대한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에 1026억원을 반영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한 IB교육 전문기 양성지원에 10억원을 편성했다. △튼튼한 버팀목으로 함께하는 시민안전: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안전분야에 4947억원을 투자한다.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급식비 지원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7425원으로 높였다. 26년 만에 독립 청사로 이전한 소방안전본부의 119종합상황실 이전에 58억원을,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위해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비 66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안전에 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17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9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62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시장은 "미래 세대에 빛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구경북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광역통합교부금 등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통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대한민국 2대 특별시로 도약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o@daum.net

군위, 공공비축미곡 확보 '힘'

올해분 3065t 매입, 연말 지급 기계화 통해 비용 절감 큰 효과

군위군은 지난달 30일까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235t 매입을 완료하고 5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벼 매입에 들어갔다.

2024년산 건조벼 매입규모는 3065t(7만6628포/40kg)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각 읍·면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을 위해 매입 농가를 대상으

로 매입 현장에서 품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중만생종 품종 중 일품, 영호진미, 미소진미, 안평 품종에 대한 농가의 재배 선호도를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 및 보급종 공급 가능 품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경 선정 심의회를 통해 확정 할 예정이다.

2024년도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당쌀이며 매입 대금은 중간 정산금으로 4만원(포대/40kg)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 군은 기계화를 통해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출



하, 이송, 보관 시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양곡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량 톨백벼 매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가 도입돼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일품, 해당) 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5년간 공공비축미

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매입이 쌀값 하락으로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달성 '참 진가평가' 영양 가득 갈비탕 선물

5개월간 어려운 이웃에 후원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소재 참 진가 평가 식당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갈비탕 총 110그릇을 기탁했다.

'참 진가평가'는 올해 7월부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저소득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10명에게 갈비탕을 제공하는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이달의 경우 연말분까지 20그릇을 제공했으며 정기 후원과 별개로 지난 중북과 말북에는 북날맞이 갈비탕 50그릇을 후원했다.

함연화 대표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에 담긴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호 면장은 "매달 영양 가득한 음식 후원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후원받은 갈비탕은 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맡아 전달했으며 협의체에서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안부도 함께 살폈다.

장충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살국유사의
농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더 새로운 안동시' 만든다

왔니까 안동장터 마케팅 전략 통 탈춤페스티벌 공간 변화 '대성황' 안동오일장 '문화+장보기' 인기 상수도 요금 감면 공약 이행

민선8기를 맞은 안동시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권기창 시장의 철학과 의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안동시의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왔니까 안동장터'가 열렸다. 지역 농축특산물의 유통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 전 세계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의 새로운 시도였다.

안동시 최초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직거래장터에서는 안동한우, 안동사과, 안동산약 마, 안동생강, 안동고구마, 안동간고등어와 더불어 백진주쌀, 안동문어 등을 판매하는 54개 농가·단체가 64개 부스에서 고객을 맞았다.

입소문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장터에는 3일간 약 12만명이 찾아 행사장에서 약 17억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현장 매진의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방송된 흡쇼핑에서 안동사과가 완판을 기록하



며 3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변화의 좋은 예다. 그동안 페스티벌은 탈춤공원 일원에서 열려 왔으나 구 안동역과 탈춤공원을 아우르는 넓은 공간으로 축제 장소를 과감하게 변화시켰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48만명이 축제에 다녀가며 새로운 변화가 큰 성과를 이뤘다.

또한 중앙신시장도 큰 변화를 맞았다. 그간 장날마다 무질서하게 펼쳐진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

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를 해결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중앙시장길 일원에서 '왔니까 안동 오일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양한 문화공연과 장보기 행사 등 시도를 통해 '왔니까 안동 오일장'은 개설한 지 한 달 만에 만석이 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상인과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다. 상

이달부터 시행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그동안 안동댐, 임하댐으로 피해를 받아온 시민을 위한 권 시장의 공약이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면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본인의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였다.

또한 시는 오랜 숙원이던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3대 특구 도전을 이뤄냈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발판 삼아 "남은 기간 혁신 또 혁신하며 전진하겠다"는 권기창 시장의 더욱 새로워질 안동을 기대해 본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문경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지구 지키기

기후위기·미세먼지 등 이론 지도 비누꽃꽂이·천연삼푸 실천도 함께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4일, 5일 문경YMCA와 연계해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됐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YMCA와 함께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미세먼지, 토양의 이해, 자원재활용 등 청소년들에게 환경이론교육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공기정화식물, 비

누꽃꽂이, 천연삼푸 등 환경을 지키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환경보전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보다 더더욱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위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출꿈터' (550-6656, 8931)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4·5·6학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영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

영주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퇴비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부숙 등)이며 지원단가는 유기질 비료는 20kg 1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

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내역을 토대로 신청물량 확정을 거쳐 2025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예천군, MZ 공무원들 정책 아이디어 발굴

예천군은 지난 5일 혁신 주니어보드 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총 6개 팀 28명의 젊은 MZ세대 공직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부터 전문 교수진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두근두근, 변혁도모의 러브레터', '군수님과 함께하는 변혁도모 피크닉'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모임 '변혁도모'라는 슬로



건 아래 정책 아이디어 발굴 활동에 매진했으며 팀별 발표를 통해 '예천형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신도시-원도심

녹색도시공간 재생사업', '원스톱 여성·아이 지원센터', '크리에이티브어예1000% 즐기기', '송평천 리뉴얼 사

혁신 주니어보드 사업계획 발표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등 제안 '다양'

업', '예천군 위케이션 구축 사업' 등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아이디어들은 각 부서로 공유되고 각종 공모사업 대응 및 군정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혁신 주니어보드 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의성군, 경북도 찾아가는 인구교육

의성군은 지난 2일 자원봉사 활동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북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가 주최하고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구의 이해, 지역의 이해, 공동체 속 나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보드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인구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인구통계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인구 문제

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한편 군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아이들행복카드 및 출산통합지원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사람이 모이는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양군,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서 지원'

20일까지 공동육아나눔터서 시행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학생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영양군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오후 5시 반에서 두 시간씩 총 6회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춘기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맞이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건강한 자아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

획됐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아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개강

2024.9.27~11.8(매주 금요일, 18:30) 분황사 경내

주최분황사 주관분황사,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운영위원회

문의 054 742 9922/ 대상 일반시민(무료강좌)

- 09.27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 남동신(서울대학교)
- 10.04 분황사 모전석탑과 신라의 불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장)
- 10.11 신라의 사리신앙과 사리공예 - 김연수(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 10.18 신라명필 김생의 필적을 찾아서 - 박홍국(전 위덕대학교)
- 10.25 신라불교와 보살 - 이주형(서울대학교)
- 11.01 분황사와 신라의 불상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 11.08 분황사에서 듣는 빈센트 반고흐의 삶과 예술 - 이태호(전 명지대학교)



투자 1번지 구미,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과 결실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통령 표창' 도레이첨단소재·하이엠케이 등 약 40개 외투기업 자리 잡고 있어 대규모 고용창출·경제 큰 기여

구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 글로벌 투자 1번지임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구미시가 도레이첨단소재와 하이엠케이 등 해외 투자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도레이첨단소재(제철)의 구미4공장 탄소섬유 기공식을 비롯해 올해 4월 오스트리아 투자기업 하이엠케이(구미인동공장 기공식, 10월 도레이첨단소재 구미5공장 IT필름 13·14호기 및 구미1공장 아라미드섬유 2호기 기공식 등 활발한 투자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계 반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 신설 공장도 계획 중에 있어 향후 구미시의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구미시에는 도레이첨단소재를 포함해 약 40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첨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며 LG, 삼성, 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구미외국인투자지역은 총 32개 필지에 168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단 4개의 필지만 남아있을 정도로 높은 투자 수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곳은 3200여명이 근무 중이며 약 2조1497억원의 생산과 10억4921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특화단지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인력

수급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PM)도 지정해 공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투자유치단 파견과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1번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의 사후 관리와 고충 처리에도 적극 나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가 산업의 핵심 정책이자 백년대계를 그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구미가 외국인 투자에 최고의 선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고령 운수면, 어르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시청각 자료 활용해 알기 쉽도록 소방안전·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고령군 운수면은 지난 5일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47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령소방서와 연계해 강재훈 소방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화재 예방을 위한 대처요령 등 시

청각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우고 실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남철 군수는 "일자리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셔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제 응급상황 시 대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칠곡군수, 정희용 국회의원과 국비 예산 확보 '의기투합'

"예산안 확정까지 최선 다할 것" 내년 국비 확보 적극 협력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칠곡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상승 칠곡군의회위원장, 박순범, 정한석 경북도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정희용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사업비 1조4800억원 규모의 32건의 국비사업과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4호선 중앙교차거리 교차로 개선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국비확



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복합 오피스 빌딩단지 조성 △칠곡 매원 도시개발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상승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박순범·정한석 도의원이 동행해 집행부와 의회

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김재욱 군수는 "우리 칠곡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발로 뛰

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칠곡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며 정희용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꾸준히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홍달기자song031700@naver.com

김천, 내달 14일부터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 시행

9개 지자체 공동요금제 적용 본인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

김천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 광역환승제는 김천을 포함해 구미, 대구, 칠곡, 성주, 고령, 청도, 경산, 영천 등 총 9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구광역철도·지하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포괄한다.

광역환승제는 이용자에게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을 제공

하며 시내버스와 대구광역철도 간 환승 시에는 버스 기본요금 외 광역철도 요금을 정액할인 받을 수 있다. 환승은 하차 후 60분 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해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오는 29일부터는 김천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에 통일된 교통카드 요금제가 적용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500원, 중고생 850원, 초등생 400원의 요금 체계가 도입돼 지역 간 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환승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이 의무화 돼 보호자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트윅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 이다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 '시선'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문 관광객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의 유일한 군 단위 소도시로 참가해 대만 방한관광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군은 첫 해외 방한관광 유치 활동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대만어로 제작된 최신 성주군 야간관광 홍보물(B2C)과 현지 유관업체 대상 야간관광 홍보자료집(B2B)을 별도로 제작·배포했다. 또한 성주군 참외 캐릭터 '참별이'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로 현지인들과 여행업계는 성주군의 여행상품 개발 독려와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관광업계 실무자를 위한 야간관광 자료집(B2B)'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자료집에는 신규 야간콘텐츠, 관광지, 추천 여행코스, 숙박, 교통, 먹거리 등 성주군 상품개발을 위한 상세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이는 개별 여행(FIT) 시장 확대에 따른 B2C 시장 공략과 함께 소도시의 핸디캡인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해외 단거리관광객 부재 극복을 위한 현지 여행업계 대

상 전략적 홍보·마케팅의 일환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엔데믹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조사에서는 향후 3년 내 한국 여행 시 서울 외 도시도 함께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84.5%에 달해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는 대만 관광객들의 소도시 관광 수요와 관심을 입증했다.

대도시를 벗어나 소도시만의 매력력을 찾는 로컬관광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권 유일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성주군은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재배되는 참외의 주요 생산지인 성주는 성주참외를 적극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로 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계획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군수는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 세계적인 로컬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성주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기아충효대리점
대표 박종찬

경주시 태종로 382-3
☎ 054-742-1010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청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대 확보

성경식품의 남다른 '독도 사랑·수호 의지'

투자계획평가 '우수' 등급 받아 김하수군수, 지방소멸 극복 위한 관련 PPT 직접 발표 높은 평가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해마다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정부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올해는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을 위해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당초 4단계에서 2단계(우수 8개 시·군 / 각 160억원, 양호 81개 시군 / 각 72억원)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금액 최대 차이(88억원)를 확대했다.

청도군은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 중심 생활권 정주 환경개선 △ Welcome! 웰니스마트 -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기술을 사람과 연결 △글로벌 청(淸)-청(靑) 드림스테이 - 청도 따뜻한 환대와 함께하는 청도의 글로벌 커뮤니티 △행복 올(ALL)타리 프로젝트 -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



촘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4개 사업을 '생활인구의 관계인구화, 관계인구의 정주민구화'라는 흐름 속에 긴밀히 연계해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김하수 군수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도군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투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투자계획 프레젠테이션(PPT)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단에게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군수의 직접 발표로 평가단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

대감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계획서의 여건 분석의 적합성, 사업의 우수성, 기업사업 간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최고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김하수 군수는 "생을 다해 열매 맺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손잡고 소멸하는 청도를 성장하는 청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대전환의 3대 정책

비전과 기업사업간의 협력을 통해 청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A등급(112억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우수등급(160억원)에 선정됨으로써 경북도에서 지원한 광역기금을 포함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4년간) 총 472억3800만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김 포장지에 독도 표기 고수 눈길 日 수출 포기 애국기업 역할 톡톡 울릉군, 지역·기업 상생발전 협약

울릉군은 지난 5일 울릉군청에서 '지도표 성경김' 포장지의 독도 표기를 고수하며 일본 수출을 포기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식품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독도에 대한 민·관·국토 수호 의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울릉도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식이 울릉군과 성경식품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일본 수출을 포기하고 애국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성경식품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지도표 성경김의 판매와 제품 홍보를 위한 길을 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육현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며 울릉군과의 협력을 통해 독도 수호를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특색 가득 '경산의 맛' 있는 이야기 펼쳐

경산 우수 먹거리·음식점 소개 전용 스마트 플랫폼 사업 보고회

경산시는 5일 경산시청 본관에서 경산의 우수한 먹거리와 음식점을 소개하는 전용 스마트 플랫폼 '식담, 경산을 맛보다' 사업의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식담, 경산을 맛보다' 플랫폼 구축을 맡은 (사)식품외식진흥협회가 진행했으며 조현일 시장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김여옥),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스마트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다양한 검색 분류 콘텐츠 시연 △향후 시스템 유지 및 홍보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외식산업의 급변 속에서 경산시는 기존 행정 홈페이지의 먹거리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경산의 맛집과 다양한 먹거리를 알리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과 먹거리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중순 경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댓글을 남긴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공공배달앱 연동을 추진해 플랫폼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현일 시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체들이 이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포항시, 서유럽서 '국제 마이스 도시 성장' 기틀 다졌다

확대간부회의서 해외 방문 성과·수소특화단지 지정 의미 공유 이강덕 시장 "市 역량 총동원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지혜 모아야"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서유럽 방문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포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번 해외 방문에서 포항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포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우수기업을 흥

보하는 한편 생명과학분야 우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찾아 포항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 등을 방문해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포항시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적극 소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서유럽 방문은 포항이 국제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포항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테마보고로 지난 1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28년까지 단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해 수소 기업 70개 사 유치와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영천한의마을 화장실 '쾌적하고 위생적'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병태)은 지난 4일 영천한의마을 한방테마거리의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문화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실문화품질(TCQ-8000) 인증은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법인 한국 화장실협회에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청결과 관리 우수성을 엄격히 검증받아야 한다.

이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공 화장실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공단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

성과다.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 및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공단의 위기 대응 및 업무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인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단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된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하나자동차매매
대표 박 원 섭

경주시 동단로 108(용강동)
☎ 054-749-5858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봉화형 치유산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울진군, 신선 수산물 '소비자 접근성' UP

국제 세미나 개최, 전문가 한자리 산업 발전방향·확정안 주제발표 미래지향 사업 발굴·선도 '최선'

봉화군은 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치유산업 발굴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일, 6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치유산업으로 봉화를 뉴빌딩하다'를 주제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향후 봉화군이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언론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먼저 정승필 영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정의 '봉화군 의료치유로 길을 만들다'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일본 호쿠리키 후쿠아엔이치로 국제관광전략관의 '일본 치유산업 활성화 사례', 김



선한 전 연합뉴스 동남아총국장의 '베트남 이해를 통한 봉화형 치유', 신원섭 충북대학교 교수의 '봉화군 산림치유가 나아가 할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의 '지역협력형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치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봉화군의 치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군의 역점사업인 K-베트남 벨리사업과 연계한 의료치유, 베트남과 연

계한 봉화형 치유는 지역실정에 부합해 더 현실성 있는 주제발표 시간이 됐다. 종합토론은 김장길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택환 경북도 기획자문관, 조지현 비즈윈 대표, 정혁훈 매일경제 부국장, 베이스매튜조슈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홍만표 일-베 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 우부구 군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

유하고 봉화군의 치유산업 확장방안 등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다. 세미나 둘째 날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과 함께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산림, 농업 치유 자원 등에 체험 및 공유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됐다.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 포럼 이사장은 "봉화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치유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봉화의 치유산업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봉화형 치유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 지향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유통시스템 구축 '당일 배송 목표' 브랜드 홍보·경제 활성화 도모

울진군은 수도권 및 내륙권 소비자들이 울진의 신선한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통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울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내륙권에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울진군 수산물 브랜드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물 포장을 세분화해 고속버스 및 냉장 탑차를 활용한 당일 배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의 배송 플랫폼 업체와 협업체 울진군의 신선 수산물을 소비자의 식탁까지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마켓컬리 사회사와의 배송 시스템 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수산물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하남 지역에 울진의 수산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을 개설해 소비자들이 울진의 신선한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의 수산물은 신선함과 품질에서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울진 수산물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4만5천명 발길 '안동 하회선유줄불놀이' 대장정 막 내려

선유·낙화 등 시연 '관광객 호응' 야간관광 콘텐츠 자리매김 '힘써'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하나로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河回夜宴)'이 지난 5일부터 이달까지 다섯 차례 시연을 끝마쳤다. 지난 2일 저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을 만송정 숲과 낙동강변 일원에서 열

린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하회선유줄불놀이 시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3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운집해 관람했다. 올해 누적 관람객은 약 4만5000여명이며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공공안전, 교통통제, 행정사무, 행사 안내 등 각 분야에 투입된 인력은 매회 200여명에 달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강 위에서 시를 짓고 뱃놀이를 즐기는 '선유', 만송정 숲과 부용대를 가로지른 줄에 숲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여 올리는 '줄불',

말린 솔가지 묶음에 불을 붙여 부용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낙화', 바가지 속에 불붙인 솜을 넣고 강물에 띄워 보내는 '연화'로 구성돼 있다. 사람의 정신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조화, 유교적 사대부 문화와 불교의 불을 이용한 정화(淨化) 의식이 융합된 결과인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라 수백년간 이어졌던 전승이 잠시 중단됐다가 해방 이후 여러 지역민과 연구자의 노력 덕에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열린 하회선유줄불놀이 시연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시는 올해 성과와 운영상 미흡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는 더욱 편안한 관람 여건과 알찬 행사구성으로 찾아뵙고자 한다. 하회선유줄불놀이가 더욱 사랑받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태 기자tae66611@naver.com

하망동 주민자치위, 고3수험생 응원 '눈길' 취약계층 7명에 텀블러·참쌀떡 등 담은 선물꾸러미 전달

영주시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 내 수능시험과 취업 준비 중인 고교 3학년 취약계층 학생 7명에게 응원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응원 선물꾸러미는 지역 내 취약계층 수험생과 취업준비 학생들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텀블러, 보온도시락, 참쌀떡, 초콜릿 등으로 알차게 구성해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김진숙 부위원장은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끝까지 힘내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미선 동장은 "학생들이 힘든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마다 이웃돕기성금 전달, 봉사활동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건강하방 the 한방체험' 행사 등 주민참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민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OX 퀴즈로 법 배워요

봉화, 준법 우수학교 법 퀴즈대회 우수학생 8명 선발, 최우수 '1위'

봉화군은 지난 5일 봉화중학교 대강당에서 제12회 준법 우수학교 법 퀴즈대회 '봉화 법(法)짱을 찾아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가 주최하고 봉화군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후원했으며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평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주제로 OX 퀴즈와 주 관심 끝낸 형식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송

미루 검사가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문제를 직접 출제하며 진행을 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우수 학생 8명이 선발돼 상장을 받았으며 영예의 1위

는 1학년 최우수 학생이 차지했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중구동 지보협, 이웃사랑 실천 '훈훈'

안동시 중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잔잔한 반찬드림'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 장애가구 등 20곳의 가정을 방문해 된장찌개, 두루치기 등 7종으로 구성된 밑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한편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포근한 겨울나기 겨울 이불 나눔' 사

업도 같은 날 진행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포근한 겨울 이불을 마련해 전달하며 추위 및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대성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항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명숙 공공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에 중구동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태 기자tae66611@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영천 성내동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승인 通

통합인가 신청에 국토부 승인
영천여고 동편 약 2700평 부지에
110세대 규모 2027 하반기 준공



시 성내동 영천여고 동편 약 2700평 규모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영천

지난달 31일 영천시는 성내동에 조성 예정인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인가(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국토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성내동에 총 110세대의 통합임대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토지 보상 등 사업에 착수해 2027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

사와 LH 간의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영천시와 LH는 변경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규모 조정, 임대유형 변경 등 시행협약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영천시와 LH 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지원체계 등을 재규정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기문 시장은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성내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isy9220@hanmail.net

알츠하이머 치료제 국제학술지 게재 '눈길'

케이메디허브, 부산대 연구진들과
GSK-3β 억제 펩타이드 효과 입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이재원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Archives of Pharmacol Research(IF=6.9)' 최신호에 게재했다.

타우 단백질은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미세소관 단백질로 과도하게 인산화되면 신경섬유 엉킴과 타우 축적을 일대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리코겐 생성효소 인산화효소 3(Glycogen Synthase Kinase 3β, GSK-3β)는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억제함으로써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응집

과 신경섬유 엉킴을 줄이는 것이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의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재원 교수 연구진은 에이케이티(Akt) 효소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규 GSK-3β 억제 펩타이드(GIP)를 발견하고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연구진과 함께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신규 GIP는 뉴런에서 Akt가 활성화될 때 GSK-3β활성을 억제하도록 설계됐으며 알츠하이머 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GIP에 대한 효과가 입증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이유정 연구원(주저자)과 이재원 교수진이 참여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Akt 활성화를 통한 GSK-3β 억제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알츠하이머 질환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한수원, 탄소중립·중소기업 상생 '솔선수범'

창원 진북산단 ㈜삼흥기계 공장 내
2MW급 규모 지붕태양광발전소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창원 진북산업단지 내 ㈜삼흥기계 제2공장에 지붕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6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붕태양광발전소는 설비규모 2MW로 지붕 면적 약 1만1000㎡에 고효율 태양광모듈 3360장을 설치해 연간 약 2410MW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한수원이 설계, 인허가, 시공 등 사업 전 단계를 자체자금으로 집행했고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도 담당한다.

한수원은 앞서 원전 부품 및 가공설비 제작 강소기업인 ㈜삼흥기계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붕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정부

의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이행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철 재생에너지처장은 "지붕태양광발전소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방식으로 환경훼손이 전혀 없고 지붕 임대를 통해 공장주는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수원은 친환경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향후 유휴시설 임차형 태양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36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해 대규모 풍력 등 총 9.8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박삼진 기자wbal12@daum.net



청도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0만~30만원 최대 2년간 지급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생 100대 실행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19세 이상·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5년 이내)다.

대상자는 경북도 주거 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청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안동 선유줄불놀이 즐기고 '특산품 주안상' 맛에 훌딱

특산품 활용한 기미주안 8매+안동 전통주 체험에 관광객 '호평'

안동의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 개발 공모전 '기미주안(氣味酒案)'을 통해 안동의 새로운 주안상 '기미주안 8매'가 지난 8월과 9월 두 달의 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이후 지난 9월 27일부터 10일간 개최된 2024 안동 국제발효페스티벌에서 '기미주안(氣味酒案) 체험전'을 진행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와 함께 전통주 시음 체험을 진행하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이달 2일 하회마을 만송정 옆 모래사장 인근에

서 2024년 마지막 선유줄불놀이 행사와 함께 '기미주안(氣味酒案) 체험전'을 다시 한번 개최했다.

'기미주안(氣味酒案) 체험전'은 기미주안 8매와 전통주를 함께 선보이는 자체 기획전으로 안동의 특산품을 활용해서 만든 안주와 전통주 한 상을 하회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러 오는 관광객에게 선보였다.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으며 기미주안 8매를 구매하면 안동의 전통주인 △안동소주 △안동맥주

△264와인 △고백주&에미주 △임하막걸리 총 5종의 주종 중 구매한 안주와 어울리는 전통주 1잔을 무료 시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게 제공했다.

안동시와 (사)안동시관광협의회 관계자는 "안동의 전통주와 어울리는 새로운 주안상을 이번 자체 기획전을 통해 많은 관광객에게 알려 기미주안(氣味酒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힘썼다"라며 "안동의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를 관광객에게 선보여 지역의 특산물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안동시, 가구주택기초조사 8일부터 시작

안동시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일 준비조사,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본조사로 총 20일간 진행된다.

지난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거주에 대해 거주 단위 항목 8개, 가구 단위 항목 6개로 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을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거주 및 가구 정보를 확인한다. 다만 건축년도 5·30년 미만 아

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항목을 확인함에 따라 현장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전주기 조사부터 종이 조사표가 아닌 태블릿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080 콜센터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오는 2025년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두 가지 총조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청명종합엔지니어링, 문경에 후원



(재)문경시장학회는 청명종합엔지니어링에서 지난 5일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하 사장은 "문경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동안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봉화 바살은, 사과 농가 일손돕기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일 명호면 풍호리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거동이 불편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읍·면 위원회와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40명이 참석해 사과 수확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김순향 농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본인 일처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신진기 협의회장은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백두대간수목원, 산학협력 선도모델로 '우뚛'

교육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기술협력부문 부총리상 쾌거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력양성과 기술협력 부문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해 산학 협력을 위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계원예술대



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교수창업기업인 엠제로랩, 춘양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별전시 '사명'을 개최해 기술협력 부문에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사명' 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종자 보전의 가치와 지구의 열대화해 따른 분화지역 춘양목과 사과재배의 위기를 담아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 수와 매출이 각 88%, 124.3%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한창술 수목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학생들은 융합형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춘양농협은 분화사과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에서 민·학 협력을 통해 수목원과 협업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경주색소폰콰이어, 만추에 물든 열연 '갈채'

색소폰 연주를 통해 삶의 행복을 전하는 경주색소폰콰이어 공연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제7회 정기 연주회 경주색소폰콰이어'는 'APEC 경주 유치 성공 개최'를 주제로 가요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무대를 채웠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색소폰만의 독특한 선율과 하모니로 표현한 요한 시벨리우스의 '필란디아'와 만추의 감성을 이루며 다양한 곡을 준비해 기계용 사용 없이 순수한 악기만으로 곡을 연주했다. 단원들은 신

용석 지휘자의 눈을 바라보며 목직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매력적인 음색을 선보였다.

김주영 회장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음악은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 속에서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에 언어가 없어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어 마법과 같은 것"이라며 "오늘 연주가 있기까지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신용석 지휘자님, 늘 든든한 지원과 격려로 힘을 주시고 멋진 연주도 함께하신 운여민 교수님, 특별출연해 주신 소프라노 박보은 선생님, 서로 응원하며 함



께 달려온 사랑하는 단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경주색소폰콰이어는 앞으로도 지역

에 색소폰의 매력을 알리고 삶에 행복을 전하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손동현 기자 dogh0311@naver.com

예천 K-water, 취약계층 수도요금 지원 '힘'



K-water 예천수도지사는 6일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70가구와 복지사각지대 15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 하는 '물나눔+행복두배 프로그램'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변강원 사장은 "이번 지원이 복지 사

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에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기탁해 준 K-water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영양, 숲가꾸기 행사로 환경 보호 실천 '앞장'



영양군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5일 '숲가꾸기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숲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삼지수변공원 일대 숲에서 산림관계자 및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체험행사에서는 소나무 등 교목 4000본에 산림용 고품질비료를 주고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오도창 군수는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태 기자 tae66611@naver.com

동 정

제4회 전국 특수교육 전문가 워크숍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40분 안동 리첼호텔에서 열리는 제4회 전국 특수교육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다.

2025년 에이스(ACE)기업 인증서식



권기창 안동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청 오후관에서 열리는 2025년도 안동시 에이스(ACE)기업에 인증서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영천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최기문 영천시장은 7일 오전 10시 그라운드골프장에서 개최되는 제7회 영천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청송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윤경희 청송군수는 7일 오전 11시 군민운동장 특설코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청송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한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개관식



오도창 영양군수는 7일 오후 2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제오교회, 이성 이웃에 김치 나눔



의성군 금성면은 지난 1일 제오교회에서 후원한 김치 30박스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오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년째 김치를 후원,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대양 목사는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김치를 통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희주 면장은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제오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2024 하반기 수강생 모집

경주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기간 2024. 8.22(목) - 12.19(목) 매주 목 / 17주 오전반(10~12시), 오후반(19~21시)

수강료 신라문화원 회 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강의장소 오전반: 서악문화공간 (경주시 서악3길 14) 오후반: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관 신라문화원 **후원** 한국수목원(가) (주) (중) 별정직립지역본부

No.	날짜	주제	강사
1	8월 22일(목)	신라의 공궤(활성)	김홍성 이사장 · 역사고고학연구소 · (재)경주문화재연구소 · (재)신라문화재연구소 이사장
2	8월 29일(목)	신라의 강(문천)	
3	9월 05일(목)	신라의 산(남산)	
4	9월 12일(목)	신라의 무덤(왕릉)	신용철 관장 · 울산시립박물관 관장 · 울산박물관 운영위원 ·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5	9월 19일(목)	조탑경과 불탑	
6	9월 26일(목)	비보사탑과 불탑	차은정 실장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전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소 · 불성기초학술연구 TF
7	10월 10일(목)	밀교와 불탑	
8	10월 17일(목)	계단(戒壇)의 구조와 상징	박광연 교수 · 동국대학교 WISE 국사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
9	10월 24일(목)	불국사 1	
10	10월 31일(목)	불국사 2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1	11월 07일(목)	석굴암 1	
12	11월 14일(목)	석굴암 2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3	11월 21일(목)	전황복사암 <황복사지상층석탑공동사리함>	
14	11월 28일(목)	백률사암 <이차돈순교비>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5	12월 05일(목)	무장사암 <무장사암비조상사적비>	
16	12월 12일(목)	송복사암 <송복사비>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7	12월 19일(목)	특별강연: 화랑과 통일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경시 동로면은 매달 미소왕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채성문 주무관을 선정해 지난 5일에 시상했다.

채성문 주무관은 지난 7월 동로면으로 전입해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10월 미소왕'으로 선정됐다.

동로면행정복지센터는 전 직원이 합심해 '친절·스마일 운동' 향상을 위해 매달 미소왕 공무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송영복 면장은 "채성문 주무관은 평소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 왔으며 항상 면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친절행정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로면 전 직원들은 '친절·스마일 운동'에 최선을 다해 면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봉화 물야면, 농가 일손 돕기 '힘'



봉화군 물야면에서는 지난 5일 가을철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봉화군 물야면사무소,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물야면 개단리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 약 6152㎡ 규모의 밭에서 사과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농가주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적기에 영농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으나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승욱 면장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질병 및 사고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돕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아름다운 하모니 선사

사과축제서 주민·관광객에 친숙한 곡 연주해 '큰 호응'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지난달 30일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주무대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의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청송사과축제에서 선보인 것으로 지역민으로서 축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다.

단원들은 '가을의 전설'과 '캐리비안의 해적'을 포함해 총 다섯 곡을 연주했으며 클래식 외에도 대중에게 친숙한 트로트 곡을 연주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



송군,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홍병희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타악 등 파트별 8명의 전문 강사와 72명의 단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청송군의 유일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올해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번 축제 무대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주)금복주 "예천 학생들 꿈마음껏 펼치길~"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는 6일 (주)금복주에서 지역 인재 육성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금복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원을 기부해 총 2000만원을 (재)예천군민장학회에 기탁,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환 대표이사는 "예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음으로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신 (주)금복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예천군민장학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의성읍 지보협,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



의성군은 의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5일 지역 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의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20명이 동참했으며 취약계층 9가정에 연탄 및

난방유를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정일 읍장은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사업을 통해 한 가구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칠곡 약목중앙교회, 지역 이웃에 전한 희망



칠곡군 약목중앙교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트(생필품 키트)박스 10개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10만원 상당의 희망 키트 꾸러미는 식용유, 김, 즉석식품, 롤휴지 등 20종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약목중앙교회는 평소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에 노력해왔다.

박종환 목사는 "우리 이웃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생필품 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고령, 장애인 일상 속 '문화체험'



고령군은 사회적 고립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및 성요셉재활원 장애인 대상으로 지난 5일 대가야시네마에서 우리마을건강파트너와 함께 영화를 감상했다.

슬기로운 재활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인 영화보기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누구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화감상 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이가 일수록 작은 즐거움을 통해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애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옥동여성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안동시 옥동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5일 옥현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여성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옥동여성자율방범대가 옥동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경찰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여성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고희희 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안전한 옥동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고향사랑기부제

영주사랑을 전해주세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주가 아닌 영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연 500만원 한도 내)
-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 e음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금융기관 대면접수(NH농협은행)
- | 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 답례품 | 농·축·임산물 (인삼, 사과, 쌀, 한우), 가공·제조품 (홍삼가공식품, 인견제품, 한과, 와인, 부각, 꿀, 장류, 차류, 유제품), 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대구 청년 기획자 3인, 미디어 공간에 예술·기술 담다

문예진흥원 기술융합 전시 3부 12일부터 대구예술발전소 3층 범진용·진상태·박성준 연계한 현대기술 진보·매체 다양성 묘사 회화·조명·음향 절묘한 컬래버 내달 중 음악가 공연 함께 진행



범진용 <풍경> 2016, oil on canvas, 227cm x 870cm.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2024년 기술융합 전시 3부 '충돌의 몽타주, 강렬함을 넘어(Montage of Conflict, over Intensity)'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공간에서 개최한다. 대구예술발전소의 기술융합 전시는 올해 초 기획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3명의 청년 기획자들이 3층 미디어 공간에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이다.



진상태.



박성준 <YourFLAMEII>.

올해 총 세 번의 전시 중 마지막으로 개최될 이번 전시명은 박성준 기획자의 '충돌의 몽타주, 강렬함을 넘어(Montage of Conflict, over Intensity)'로 참여 작가인 융합 예술가 박성준(기획자), 회화 작가 범진용, 실험음악가 진상태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형식적 변화를 거진다. 작가는 무의식의 파편들을 재구성해 익숙한 듯 생경한 장면을 재현한다.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기획자이자 작가로 참여하는 박성준은 인터랙티브 설치, 영상 언어와 사운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내러티브 효과를 탐구한다.

이번 전시 '충돌의 몽타주, 강렬함을 넘어'는 기술의 진보와 매체의 다양성이 불러온 담론의 확장과 복잡한 서술화를 다루며 동시대 예술이 제시하는 내러티브의 형식을 고찰하는 전시이다. 전시 공간은 총 3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범진용 작가의 작업 연대기와 연관된다. 범진용 작가의 회화 작업은 무의식이 기록된 꿈의 이야기로부터 버려진 땅, 인물로 이어지는

실험음악가 진상태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사물들을 발음체로 전환해 이를 공간에 재배치하는 음악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관람자의 위치나 동작, 장면의 전환 혹은 편집으로 이어지며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공간적 몽타주가 재생산된다. 관객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마주하는 회화의 일부와 조명 효과, 사운드의 강렬한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예술발전소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체 관람은 대구예술발전소 누리집(www.daeguartfactory.kr)을 참고해 예약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김하수 군수는 "이번 정기공연이 지역주민들과 청도를 방문하신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선보이고 전통음악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음악과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안동문예전당 기획 어린이뮤지컬 전석매진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

공연 일주일 전 전화 예약 '불티' 서울·경기 등 전국 방문객 줄이어 지역 창작 문화콘텐츠 기능성 제시



지난 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공연 일주일 전부터 전화 예약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옹부홀 공연에서도 보기 드물게 700석의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됐다.

졌다. 관객들은 공연 중간 중간에 '안동생강 이야기'와 '안동간고등어',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 등의 책을 선물받고 기뻐했으며 공연 시간이 끝난 후에는 배우들과 포토타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극단 커튼콜'의 김명희 단장은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온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기드문 콘텐츠"라며 "안동 출신의 배우들과 지역에서 만든 좋은 작품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조선 중종 때 대제학을 지낸 실존인물 김안국(金安國, 1478~1543년) 선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어린이뮤지컬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이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어린이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공연을 보러 온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교육적인 내용에 "너무 재미있고 유익해요.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공감대를 느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은 흔하지 않은데 이런 어린이 뮤지컬이 자주 공연됐으면 좋겠어요"라며 만족해 했다.

책벌레가 된 명칭이 장원급제대소동"은 안동에서 14년째 공연해 온 장수 뮤지컬로 새로운 스토리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창작오페라 '금지옥엽'과 더불어 지역 창작 공연문화콘텐츠의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청 동력관의 만석 공연에 힘입어 올해는 더 큰 대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빈자리가 없어 돌아오는 관객들이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자랑했다.

김경태 기자taef6611@naver.com

국내 최초 세계지도 '만국전도'... 우리 땅 '독도' 행

예천박물관 소장 독도박물관 전달

예천박물관은 지난 5일 우리나라 최초 세계지도인 '만국전도' 복제품을 독도박물관에 전달하고 박물관형 콘텐츠 개발과 전시·교육 활용 강화를 위한 MOU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으로 예천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내 최초 세계지도 '만국전도'와 국내 최초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안용복의 활동상이 기록된 '동국통지' 등 주요 자료를 공유해 양 기관이 상생하는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21년부터 '나라사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해 독도박물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도박물관은 해마다 국내외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콘텐츠 협력을 통해 예천박물관의 대표자료가 국내외에 널리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MOU 후속사업의 일환

예천박물관은 지난 2020년 독도박물관과 MOU 체결, 2021년에는 독도를 주제로 한 '공동기획전'을 개최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다채로운 장르 크로스오버 우리 전통음악의 저력 선배

청도군 은누리국악예술단 정기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초청 줄타기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로 호응 속 마무리

청도군이 주최하고 은누리국악예술단이 주관하는 '2024년 은누리국악예술단 정기공연'이 지난 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은누리국악예술단은 지난 1995년 설립돼 청도를 대표하는 전통예술단체로서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전통음악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국악을 바탕으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해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은누리국악예술단 정기공연'에서는 다양한 전통예술 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 민속공연 발전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궁중 줄놀이 계승자 박희승 명인을 초청, 줄타기 공연을 비롯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신이 담겨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배 띄워라', '아름다운 나라' 등 과거와 현재를 이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작민요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과 청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정기공연이 지역주민들과 청도를 방문하신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선보이고 전통음악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음악과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제12회 청소년가요제 The 12th Youth Song Festival

가요제 + 댄스 페스티벌

2024 11.23 (토) ~ 19:00 봉황대 야외 특설무대

Dream, 스타를 꿈꾸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투데이 홈페이지 참조 www.gyeongsangtoday.com

칼럼

부정성 편향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당신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있는 친한 친구를 봤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나머지 당신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친구도 분명 이쪽을 본 것 같은데 당신에게 화답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쳐다보는 사람들 시선에 일단 부끄러우데고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친구가 사고를 당해 청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다.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적어도 화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중립 사건(neutral event)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사건에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정신의학적으로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이라고 한다.

왜 인간은 '부정성 편향'을 가질까? 원시시대 인류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밀림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 부류는 맹수가 다가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피신을 했다. 또 한 부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두 부류 중 어떤 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맹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피신했던 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신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맹수가 아니었다 해도 놀이를 더 못 했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존한 자의 후예이다.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사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은 원시시대 직접적 위험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 생존 본능에 기인한 뇌(腦)의 방어기제이다. 인간의 뇌는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연계 특히 편도체가 일단 이를 위험 인자로 느끼게 해서 피하도록 해준다.

거친 자연환경을 마주하며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돼 왔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에 집단 무의식으로 आरो새겨져 있는 것이다.

사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맹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크게 위협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현대에는 원시시대와 같이 맹수가 나타나서 목숨을 잃을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사건도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속도는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부정성 편향'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 상황이나 애매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한다.

또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됐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웃는 얼굴보다는 화난 얼굴, 타

인의 선한 행동보다는 악한 행동,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칭찬보다는 비판, 긍정적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에 더 반응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에 आरो새겨져 있는 '부정성 편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까?

먼저 부정적 사고와 감정들은 '부정성 편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병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유래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성 편향'에서 자신, 타인,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이 '부정성 편향' 값을 제거하고 바라봐야 사실에 근접할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고 다가오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해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울감과 불안감의 대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또한 지나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결코 우울감과 불안감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극심한 부정적 사건을 겪으면 그 영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올 것이라 흔히 생각하지만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더 많이 이룬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 사공정규 교수와 함께하는 마음공부

《35년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1000여회 이상의 정신인문치유학적 스토리텔링 즉문즉답(卽問卽答) 대화형 강연으로 수십만명의 삶을 변화시킨 힐링닥터 사공정규 교수와 함께하는 때 매리는 마음공부》

독자기고

'문경관' 열린 소통과 통행권

남상욱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입점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이 위치에는 보행자 인도가 따로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경적이 울릴 때면 사고위험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올해 1월 한국전력공사 문경지사장이 시장남께 부임 인사차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눌 때 필자도 배석해 시민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나눴다.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라도 반듯한 땅을 분할해 도로로 내놓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대지 분할과 공사 과정을 거쳐 반듯한 인도가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의 협조로 흠플러스 차량 출구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 개설, 반사경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

비했다. 문경시와 한국전력 그리고 문경경찰서까지 적극적인 소통과 양보로 이뤄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한편 문경여자중학교에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로 가는 모전천 옆길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주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어 마치 동서가 단절된 것처럼 보행과 차량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다.

필자가 점촌5동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장지 미해결 주민숙원 사업이었다. 현재 이 사업은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과, 해당지역 통장, 토지 소유자들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곧 보상과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들이 넓은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윤 대통령 담화에 담아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해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초래한 난관 돌파를 위해 '무제한 질의응답' 승부수를 띄웠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반전의 계기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지지율이 낮다"는 등, "똥을 맞고 가겠다"는 등 복장 터지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던 게 며칠 전"이라며 "기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뉘엿지 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명태군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사과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이 대국민 담화를 백안시하는 데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참 어렵다"고 해명하는 등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혀야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용이 반성과 사과, 국정 해신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김 여사 관련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명태군계이트진상조사단에 소속된 전용기 의원은 "여러 가지 녹음이 있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의혹을 축소하려 하거나 소극적 방어 논리에만 집중할 경우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검 여론 확대를 목표로 지난 2일 서울역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에도 같은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어렵게 대국민 담화를 결정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해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사안들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다 유연하고 국민 친화적인 국정 스타일로 전환해야 한다.

'똥을 맞더라도 간다' 식의 나홀로 국정 운영은 곤란하다. 2년 반동안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contact information table including phone, fax, and email details.

Advertisement for 'Share Praise' campaign with text: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회장배 동문골프대회

2024.11.12(화) 12:00

시상식 | 19:00

장소 | 경주 신라CC



대회장 이 승 협



주최

월성중, 경주정보(상업)고 총동창회

주관

수송골프회